SIAS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3호 2001년 11월 20일 발행인 민상기

▶일본자료센터 행사정보

제2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실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제2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일본 각지에서 선발된 중 고교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구체적인 행사내용은 본 뉴스레터 9~11페이지 참조).

본 센터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크게 강의, 현장교육, 지방답사로 기획하였고, 이 틀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였다. 다만 작년의 제1차 초청연수와 다른 점은 첫째 날씨를 고려하여 11월에서 10월로 시기를 변경한 점, 둘째 작년 연수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 강의 수와 과목을 일부 변경한 점, (2) 김치만들기 등 일부 현장실습을 추가한 점, (3) 자유연수시간을 다소 늘린 점을 들 수 있다.

일본 교과서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당초 행사가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행사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올해로 이 행사가 두 번째를 맞이한 관계로 작년 보다 순조롭게 진행된 점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본 행사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일양국간에 상호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교류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자 수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간에 적대가 아닌 우호와 상호신뢰가 싹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일본연구

일본의 〈중류붕괴〉논쟁

이지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Ⅰ. 들어가는 말

1963년 사회학자 미타 무네스케(見田宗介)는 근현대 일본의 각 시대에 어울리는 색채를 묻는 사회심리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메이지시대는 보라색, 다이쇼시대는 황색, 쇼와 초기는 청·녹색, 전시기는 흑색, 패전 직후는 회색, 그리고 조사 당시의 시기는 핑크빛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핑크빛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일본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루며 경제대국의 지위에 안착했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한 1990년대 이후의 이미지는 어떨까? 아마 전시 및 패전기에 해당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을지라도 결코 밝은 색은 아닐 것이다. '버블붕괴', '제도피로', '구조조정', '잃어버린 10년' 등이 이 시기 내내 울려퍼진 문구였고, 기존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던 일본의 주요제도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종래의 일본적 경영 및 경제시스템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관행화된 정치행정시스템 역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각종 재해, 실업율 및 범죄율의 증가에서 보이듯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동시에 안정된 사회라는 이미지는 손상되었다. 특히 일본사회의 안정을 대표하는 교과서적 상징어였던 '중류사회'라는 관념에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도래'라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중류붕괴〉논쟁이 출현하게 되었다.

Ⅱ. '1억 총중류사회'의 신화(神話)

저널리즘적 표현이긴 하나 현대일본은 '1억 총중류사회'로 불리어왔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전후개혁과 경제성장을 통해, 구 신분질서의 해체, 절대빈곤의 탈피, 이데올로기적·계급적 대립구도의 퇴조가 이루어졌고, 서구와 달리 중산층과 노동계층 간에도 생활양식 및 의식면에서 유사성이 컸던 점, 1960년대 OECD의 보고서가 일본은 북유럽나라들 수준으로 소득분배가 실현되어 평등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 등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이 어우러져 사회성원의 대다수는 최소한 '계층귀속의식'의 면에서 '중류'라는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SSM조사(「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전국조사」)에서 중간층귀속의식은 1955년 42.6%, 1965년 57%로 늘어나 1975년에 77.8%에 달했고, 총리부 國民生活調査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中'이라고 답한 비율이 1960년 76.2%, 1965년 86%에서 1975년도에는 90%를 넘어섰다. 고도성장의 결과 가히 '1억 총중류사회'의 신화적 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물론 '중류의식'이 90%라고 하여 중간층이 실제 90%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미지'로서의 평등사회라는 점이다. 전후 및 고도성장기에는 사회이동이 빈번하였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사회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공유되었던 것이다. 가령 1984년에 나온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의 '신중간대중론' 역시 "모두에게 중류로 상승이동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어 일반에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이라는 징표가 되는 동시에 또한 그러한 자기암시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였다.

Ⅲ. 〈평등사회 일본〉 신화의 균열

'1억총중류=평등사회'란 관념은 당연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일종의 신화이기 때문에 수시로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이전에도 그러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기업의 합리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류의 위기'가 이야기되었고, 또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의 '거품경제' 시기에도 부동산 및 금융상품의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빈부격차의 확대'가 빈번히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우려는 대개 일시적 · 부분적인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거품붕괴' 이후에는 내외적으로 이전과 완연히 다른 환경이 도래하였다. 막대한 불량채권, 일본경제의 전망 부재, 금융계의 통폐합, 대기업의 도산, 중고년실업, 젊은이들의 취업난 등등을 겪으면서 대중적 불안감은 커졌다. 이 와중에 '불평등의 확대'를 지적하는 학문적 논의가 출현하였다.

먼저 경제학쪽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치바나키 토시아키(橘木俊昭) 교토대학 교수는 저서『日本の經濟格差 — 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岩波新書)를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을 볼 때 미국보다도 일본의 지니계수가 크다, 일본은 선진제국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도가 높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결국 '중류붕괴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정기적으로 SSM조사에 근거한 계층연구를 진행하는데, 1999년 하라 쥰스케(原純輔) 토호쿠대학 교수와 세이야마 카즈오(盛山和夫) 도쿄대학 교수는 공저『社會階層 — 豊かの中の不平等』을 통해 불평등의 확대는 없었다고 결론지은 반면, 사토 토시키(佐藤俊樹) 도쿄대학 조교수는『中央公論』특집에 "「新中間大衆」誕生から二十年"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지식엘리트'라 불릴만한 화이트컬러 상층(전문 · 관리직)의 경우 세대간 지위재생산경향이 강화되면서 '기회의 평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서의 견해에 대립되는 주장을 폈고, 그의 저서『不平等社會日本』(中公新書)는 간행 3개월만에 8만부를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카리타니 쯔나히코(苅谷剛彦) 도쿄대학 교수는 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학력이 저하된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학력도 낮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고학력 부모들은 더욱 더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며, 그 결과 학습의욕 및 흥미 · 관심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00년에는 주요월간지가 이 주제를 동시에 특집으로 다루는 등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이후 논자들간에 반론 및 재반론이 이어되는 등 제법 치열한 논쟁으로 발전하면서 이는「중류붕괴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Ⅳ. '중류붕괴논쟁'

이른바 '중류붕괴논쟁'은 소득, 세대, 학력 등 각 방면에서의 불평등확대의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소득 및 세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먼저 타치바나키의 경제격차 악화론은, 일본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상승하여 미국을 능가(1989년 미국은 0.40, 일본은 0.433)했다는 주장으로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이는 오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 오사카대학 조교수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우선 일본이 미국보다 불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이는 타치바나키가 일본 후생성통계의 '당초소득'과 미국의 '과세전 소득'을 동일시한데서 온 오류이다. 양자는 공적연금의 포함 여부, 퇴직금 및 보험금 수수 여부 등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수치상 일본의 경제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의 원인은 다름아닌 고령세대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일본과 같이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또 연령별소득격차도 확대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 전체의 지니계수는 상승한다. 하지만 연령내의 소득격차는 수십년 전이나 현재나 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불평등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타치바나키는 데이터 처리상의 일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과세후 소득(재분배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미국보다 심하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북유럽 수준의 평등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큰 나라들 — 영국, 프랑스, 독일 — 수준의 '보통 국가'가 되었"음을 재삼 강조하였다.

한편 사토는 하라 및 세이야마와 동일한 SSM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전문직 및 관리직에 도달하는 지식엘리트의 계층상속이 2차대전 이전 이상으로

강해졌다"고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대중들이 느끼는 '중류붕괴'의 실체를 소득격차확대보다는 상승이동을 할 '기회의 평등'의 감소에서 찾은 것이다. 사토에 따르면 종래의 '1억총중류'의 관념 역시 이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증명가능하다. 즉 남성(20~69세)의 직업계승성 추이의 오즈比를 보았을 때, '화이트컬러 상층'(전문 · 관리직 피고용인, 법인기업의 간부 포함, 통념상 고학력 · 고수입층)의 경우, 1955년 조사의 수치는 10, 즉 조사대상의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의 경우 그 아들이 전문관리직에 이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배 높았다. 그러나 이후 이 수치는 급속히 저하하여 1975년 이후에는 4로 감소했다. 이처럼 확대된 상승이동의 기회, 바로 이것이 '1억총중류'사회를 만들어낸 감각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995년 조사의 1936년-55년생('단카이 세대')에서는 반전상승하여, 1955년 조사의 1896~1915년생(메이지시대 출생 마지막 세대)의 상태에 근접하였다. 즉 "'단카이세대'의 경우, 아버지가 화이트컬러상층이 아닌 사람이 화이트컬러상층으로 되기가 2차대전 이전과 같은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막연한 이미지였던 '총중류'는 해체되고 '중간계급'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가며,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욕상실과 폐색감이 늘어나게 된다. 즉 전후 경제성장에 의한 파이pye의 확대와 기회의 평등의 확대가 끝나고 선발시스템 전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라 및 세이야마의 반론 및 사토의 재반론이 이어졌다. 세이야마에 따르면, '중류붕괴'는 "그럴싸 하지만 진실이 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이야기(物語)에 불과"한데 근년의 구조조정과 불황 속에서 불안감을 지닌 사회성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객관적 근거를 부여하는 학문적 연구들이 타치바나키 및 사토의 작업으로 대중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토의 견해 및 대중적 통념에 대한 그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식엘리트의 폐쇄화' 가설의 경우, 자영업을 포함한 전문직 및 대기업 종사 화이트컬러층의 범주를 병행하여 40대, 50대 연령층에서 상위계층 폐쇄성의 경향을 조사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폐쇄성이 상승하기 보다는 감소하였으며, 상승한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 이는 계층구분 및 본인획득지위의 측정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며, 그만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 SSM조사 데이터의 경우, 연령을 한정하여 특수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대상샘플의 수가 수십명 정도로 아주 적어진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는 해도 이처럼 적은 샘플에서 도출되는 '격차'는 우연적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중류와 중간계급 및 신중간대중 등의 개념들은 원래 동의어가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동일시되게 되었다. 가령 여론조사상으로 "자신은 중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정도의 응답을 매스컴이 확대해석하여 '1억총중류'라고 과장하면서 어느새 '신중간대중'은 '중류'라는 말과 동일시되어 버렸고, 또 이전에는 '충분한 자산, 소득 및 독립된 지위'를 의미한 소수의 '중간계급'가 단지 '(의식주 및 여가 등등에서 초라하지 않은) 중 정도의 생활을 영위'를 의미하는 '1억총중류'로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혼란은 잘못된 현실이해의 원인이 된다. 요컨대 중류는 상징적 이미지에 불과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 정도의 수입 및 생활수준을 지닌 사람은 항상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류붕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계급'이라는 용어 및 '새로운 계급사회'의 도래에 대해서도, 세이야마가 보건대 ① 직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분이 주요한 정치적 이해대립을 이루어 정치적 변혁을 지향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기반을 이루며, ② 그 각각에 '어울리는' 생활양식 및 생활기회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규범적으로 널리 사람들에 의해 인정될 경우 계급이 출현하는데, 이런 점에서 고도성장기 이후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계급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아주 약간 이동이 감소하거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 이조차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 '계급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일본뿐 아니라 선진사회에서 '계급성'은 감소하고 있고 이는 역전불가능한 현상임을 역설한다. 넷째, 신자유주의와 시장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중류붕괴' 관념의 확산은 결국 당면한 경제적 불안정 때문인데, 이는 신자유주의나 시장화의 결과가 아니라 '거품경제붕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또 중고년실업 등은 금융 및

상사의 일부 대졸 샐러리맨층에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말단건설노동자나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쟁적 조건 아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현재의 불안감은 사회 전체의 것이 아니라 종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온 대졸남자샐러리맨층에 경쟁논리가 도입된 결과 야기된 불안감이며, 따라서 이 부문의 경쟁 도입은 '지식엘리트'의 폐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화를 의미한다. 야심있고 능력있는 신참들의 참가가 가능해지며, 학력주의풍조 및 교육방식에도 변경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쟁은 기회를 확대하며, 중류붕괴 및 신계급사회의 도래란 현재의 불안심리가 만들어낸 환영(幻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토의 재반론은 크게 논쟁과정에서 있기 마련인 논지의 오해에 관한 지적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이 상정한 화이트컬러 상층은 4년제대학 이하 학력보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학력경쟁뿐 아니라 입사 후의 승진경쟁을 1세트로 본 개념임을 강조한다. 또 세이야마의 지적대로 측정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토가 '40세 시점의 관리직 도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의미는, 바로 대기업의 과장 승진은 35~37세가 정점으로, 대졸이건 아니건 최종결정은 40세 시점에서 판단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같은 대중사회에서 학력만으로 선발은 조기 완료되지 않으며 취업 후에도 '긴 선발기간'을 거친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학력'의 과도한 강조 및 종래 화이트컬러층에는 경쟁이 없었다는 단순화를 비판하며 나아가 '경쟁이 없다'는 것과 '기회의 불평등'을 혼동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대상사례수의 많고 적음보다도 '기회의 불평등' 존재 여부는 항상 '사후적 시점'에서, 즉 사태가 진행되어 불평등이 드러난 상태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며 그 외의 방법은 없다는 딜레마에 대해 지적한다. 그럼에도 사토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평등해야 마땅한 선발에서의 기회의 불평등, 이른바 경쟁사회 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불평등은 형식과 실질이 괴리된 것으로, 경쟁의 자유를 내걸고 선발의 결과라는 형태로 개개 사회성원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우 기회불평등을 보려면 화이트컬러 전문관리직을 보는 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세대간 지위계승성이 전전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견한 것이다. 다만 전전과는 달리 전문관리직이 전전의 10%에서 현재 25%로 증가하는 등 '중류'는 확대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한 것은 '중류'의 붕괴가 아니라 '총중류'의 붕괴, 즉 상승이동 가능성에 대한 공유된 믿음의 붕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불평등은 어디까지나 전전과 달리 현대적인 것이라는 점, 즉 첫째, 생활수준의 절대적 격차는 크게 축소되어 가계지출, 소비스타일, 학력 및 승진경쟁을 위한 경제적 접근능력 등에서 전전과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균질화되었고, 둘째, 바로 이렇듯 "균질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균질하지 않은 격차에 대해서 한층 더 예민"해지고, 선발과정을 거치면서 '불평등'이라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풍요 속의 불평등'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존재가 아니며 그 이상의 비중을 지니고 사회성원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외에도 논쟁의 전모를 살펴보면, 불평등의 실태 파악뿐 아니라 조사방법론, 불평등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결부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빚었는데, 이상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주의해야 할 것은 '중류붕괴'라는 표현 자체에 보이듯 학문적 논의가 대중적 관심과 저널리즘에 의해 증폭되고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대중의 불안 및 불만과, 타치바나키 및 사토의 연구가 지적한 불평등의 원인은 일단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1989년, 1995년 등의 데이터에 기초한 것으로 당연히 그 원인은 그 이전 시기에 배태된 것들이다. 즉 종래의 일본형경영·경제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대중의 불안은 최근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IT혁명, 신흥부유층 및 실업자군과 노숙자 양산 등의 사태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1억총중류'의 신화 속에서도 현실적인 격차와 불평등은 엄존하였다. 세대간 지위계승성 역시 1980년대에도 지적되던 것들이다. 다만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파이의 확대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대중적

불안과 불만으로 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문제들은 고도대중소비사회의 풍요 속에서 가리워졌던 현대 일본의 불평등문제를 대중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게 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머무르며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이전보다 중간층은 좀 더 분화되고, 또 사회성원들도 그것을 의식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베스트셀러로 된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류의 표현이다. 물론 이 부분은 지속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엄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평등'의 허용범위 및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과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른바 '1억총중류'의 신화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통합의 기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

일본관계 도서 및 자료구입

본 일본자료센터에서는 제6차 도서구입을 완료하였다. 일본자료센터에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한 도서와 자료는 총 412권에 달하며, 조만간 국제지역원 자료실(신관4층)에 비치될 예정이다. 도서 및 자료선정 기준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가로 인해 개인 연구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없는 서적과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총서류 등의 시리즈물, 참고서적 공구류 및 기초자료를 구입하는데 치중하였다.

도서 및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전문서적 · 전집류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 21世紀に向けての展望』總理部(編), 財務省印刷局, 1994

『現代日本の政治家像 Ⅰ, Ⅱ』蒲島郁夫ゼミ (編), 木鐸社, 2000

『有權者の肖像 : 55年體制崩壞後の投票行動』蒲島郁夫(編), 木鐸社, 2001

『新昔全記錄 Ⅰ, Ⅱ, Ⅲ』蒲島郁夫(編), 木鐸社, 1998

『高度成長期の政治學』大嶽秀夫(著), 東京大學出版會, 1999

『政治改革 1800日の眞相』佐佐木毅(編), 構談社, 1999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グローバリズムと國家意識』佐伯啓思(著), 講談社, 1998

『政昔支持の構造』三宅一郎(著), 木鐸社, 1998

『55年體制下の政治と經濟: 時事世論調査デ ― タの分析』三宅一郎(著), 木鐸社, 2001

『戰後日本政治と社會民主主義: 社會堂總評ブロックの興亡』新川敏光(著), 法律文化社, 2001

『日本の國會政治: 全政府立法の分析』福元健太郎(著), 東京大學出版社, 2000

『近代日本の知と政治』山室信一(著), 木鐸社, 1985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 朝貢國から國民國家へ』木村幹(著), 2000

『近現代日本の新視點: 經濟史からのアプロ-チ-』中村政則(編), 吉川弘文館, 2000

『經濟危機の比較政治學: 日本とイタリアの制度と戰略』井戸正伸(著), 新評論, 1998

『同盟漂流』船橋洋一(著), 岩波書店, 2000

『日本文化史槪論』(全15卷) 石田一良(編), 吉川弘文館, 1968

『日本民俗文化大系』谷川健一(外編), 小學館, 1995
『日本民俗文化大系』南方熊楠 (外編), 講談社, 1995
『石母田正著作集』(全16卷) 石母田正(著), 岩波書店, 1990
『井上光貞著作集』(全11卷) 井上光貞(著), 岩波書店, 1986
『日本文化史の研究』(全7卷) 講談社, 1978
『戰國, 織豊期の權力と社會』本多隆成(編), 吉川弘文館, 1999
『(日本の歷史)日本とは何か』綱野善彦(著), 講談社, 2001
『(日本の歷史)古代天皇制を考える』大津透 (外著), 講談社, 2001
『日本平和論大系』(全20卷) 家永三郎(編), 日本圖書センター, 1993
『近代日本文化論』(全11卷) 青木保 (外編), 岩波書店, 1999
『現代日本文化論』(全13卷: 第5·9·12·13卷缺) 河合準雄(外編), 岩波書店, 2000
『ものと人間の文化史』(全118卷) 立川昭二 (外著), 法政大學出版局, 1986～2001
『近代日本廣告史』大伏肇(著), 東京堂出版, 1990
『相撲の歷史』新田一郎(著), 山川出版社, 1994
『大嘗祭の世界』眞弓常忠(著), 學生社, 1989
『大嘗祭: 天皇卽位式の構造』吉野裕子(著), 弘文堂, 1990
『地方史研究の新方法』木村礎 (外編), 八木書店, 2000
『民衆生活の日本史』(全3卷) 林屋辰三郎(編), 思文閣出版, 1997
『日本藝能史』(全6卷) 藝能史研究會(編), 法政大學出版局, 1996
『日本の食文化』(全12卷) 芳賀登·石川寬子(監修), 雄山閣, 1999
『(ビジュアル史料)日本職人史』(全3卷) 遠藤元男(著), 雄山閣, 1995
『アジアから考える』(全6卷) 溝口雄三(外編), 東京大學出版會, 1994
『日本民俗寫眞大系』(全8卷) 綱野善彦(外監修), 日本圖書センター, 1999
『畵報近代百年史 』(全6卷) 日本近代史研究會(編), 日本圖書センター, 2000
『東京大學年報』(全6卷) 東京大學史史料研究會(編), 東京大學出版會, 1993
『文化學術立國をめざして: 國立大學は訴える』國立大學協會(編), 東京大學出版會, 1995
『プロムナード東京大學史』寺 昌男(著), 東京大學出版會, 1992
『敎養の日本史』竹內誠(外編), 東京大學出版會, 1995
『方法敎養の日本史』佐藤和彦(外編), 東京大學出版會, 1995
『東京大學の學徒動員學徒出陣』東京大學史史料室(編), 東京大學出版會, 1998
『講座現代アジア』(全4卷) 土屋健治 (外編), 東京大學出版會, 1994
『(講座)日本の民俗學』(全10卷) 福野小香赤(著), 雄山閣, 1998
『街道の日本史』(第3/9/10/23/45/53卷) 飯田文彌(外編), 吉川弘文館, 2000～2001
『世界大百科事典第2版モバイル對應版』平凡社

■ 사전류

『國書總目錄(補訂版)』(全9卷) 岩波書店(刊行), 岩波書店, 1989
『邦譯 日葡辭典』龜井孝(解題), 勉誠社, 1975
『讀史備要』東京諸國大學校史料編纂所(編), 構談社, 1966
『日本國語大辭典』(全20卷) 日本大辭典刊行會 小學館 2000～2001
『逆引き廣辭苑(第五版對應)』岩波書店, 1999
『廣辭苑(第五版机上版)』岩波書店, 1998
『20世紀の世界紛爭事典』浦野起央(編著), 三省堂, 2001
『〈圖說〉日本城郭大事典』(全3卷) 平井聖(監修), 日本圖書センター, 2000
『洋學史事典』日蘭學會(編), 雄訟堂出版, 1984
『柳田國男事典』野村純一(外編), 勉誠出版, 1998
『日本の洋學』(全4卷) 有坂隆道·淺井允晶(編), 廳文堂, 1993
『(ビジュアル百科)江戶事情』(全6卷) NHKデータ情報部(編), 雄山閣出版, 1992

『日本佛教史辭典』今泉淑夫(編), 吉川弘文館, 1999
『有識故實大辭典』鈴木敬三(編), 吉川弘文館, 1998
『日本史總合年表』 加藤友康 · 瀨野精一郎(編), 吉川弘文館, 2001
『日本民俗大辭典(上下)』 福田アジオ · 新谷尙紀(編), 吉川弘文館, 2000
『對外關係史總合年表』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編), 吉川弘文館, 1999
『六國史索引(三 · 四)』(六國史索引編集部(編), 吉川弘文館, 1992 · 1994
『有識故實圖典: 服裝と故實』 鈴木敬三(著), 吉川弘文館, 1996

■ 백서 연감

『勞髣經濟白書』 勞動省 日本勞動研究機構 2000 · 2001
『海外勞髣白書』 勞動大臣官房國際勞動課 編著 日本勞動研究機構, 1996～2000
『勞髣運動白書』 日本勞動研究機構 編 日本勞動研究機構, 1996～2001
『防衛白書』 防衛廳 編 大藏省印刷局, 1997～2001
『外交靑書』 外務省 大藏省印刷局 1997～2000＋別冊 · 2001＋別冊
『情報化白書』 日本情報處理開發協會 日本情報處理開發協會, 1992～2001
『國民生活白書』 經濟企劃廳 大藏省印刷局, 1998 · 1999 · 2000
『科學技術白書』 經濟企劃廳 編 大藏省印刷局, 1997～2000
『厚生白書』 厚生省 編. 厚生問題硏究會, 2000
『環境白書』 環境廳 編 大藏省印刷局, 1996～2001
『中小企業白書』 中小企業廳 編. 大藏省印刷局, 2001
『白書の白書』 木本書店 1999 · 2000 · 2001
『情報サービス産業白書』 情報サービス産業協會 編 コンピュータ エージ社,1998～2001
『通信白書』 郵政省 編. 大藏省印刷局, 2000 · 2001
『政府白書目次總覽』(全7卷), 日本圖書せんたー, 1999
『日本勞髣年鑑』 大原社會問題硏究所(編), 勞動旬報社, 1969～2001
『年報政治學1997年版 · 2000年版』 日本政治學會(編), 岩波書店, 1997 · 2000

■ ビデオ

『映像でつづる昭和史』(4set) NHK(編), NHKサービスセンター, 1989
『NHK名作100選—王貞治800への道 —誕生横綱千代の富士—黑い雨』 NHKサービスセンター 1990
『NHK日本の庭園』 NHKサービスセンター, 1990
『日本文化史』(10set) 日本放送敎育協會(制作) (株)バンダイミューズックエンタテインメント, 1991

■ CD-ROM

『日本語語彙大系CD-ROM版』 岩波書店, 1998
『廣辭苑(第五版CD-ROM版)』 岩波書店, 1998

■ 기타 잡지류

『(月刊)しんぶん赤旗』 日本共産黨機關紙經營局, 1961～
『興亞會報告 · 亞細亞會報告』 興亞會 · 亞細亞協會(編), 不二出版, 1993
『(寫眞集)20世紀の記錄: 新聞社が傳えた日本の100年世界の100年』 共同通信社, 2000
『全國短期大學槪要論文索引 1950-1984: 人文科學 社會科學 編』 圖書館科學會(編), 日本圖書サンター, 1986
『レヴァイアサン』(1～28號) 現代日本政治硏究會(編) 木鐸社

▶연수프로그램내용

제2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프로그램

1. 목적

한일 양국의 중 · 고교 교사 및 교육담당자들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상대국에 대한 교육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 행사개요

● 주관기관
- 초청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 행사주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초청기간: 2001년 10월 16일(화)～10월 30일(화)/14박 15일간

● 초청인원: 25명(일본인 교사)

● 행사내용
- 강　의: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 현장교육: 문화 · 예술 공연관람 및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
  박물관 및 고궁 견학
  교육현장 방문 및 학생, 교사와의 간담회
- 지방답사: 부여, 경주지역의 역사 · 문화유적지 답사
- 자유연수

3. 업무분담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을 통한 참가자 모집, 항공편 및 항공권 제공, 행사개최경비 부담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행사일정 계획 및 운영, 행사시설 제공

4. 행사운영의 주요특징

●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 마련.

● 현재의 한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하에 강의를 준비함.

● 지방문화유적지의 사전답사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답사 준비.

●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차이에 관한 이해.

● 한국인의 인정과 생활을 직접 체험.

5. 행사일정표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10/16			
(화)	16:00	인천공항도착	
	19:00	숙소도착 ≪호암관≫	숙소안내 : 코디네이터
	19:30	석식 및 오리엔테이션	석식 : 마로니에
10/170		조식	
(수)	9:40~10:20	개회식	개회식 및 강의실 : 마로니에
	10:30~12:00	강의: 대일본현안의 문제에 관한 역사적 이해(김용덕)	
	(11:30-12:00)	(질의응답)	
	12:00~13:00	중식	중식 : 샹그리라
	13:00~14:30	서울대 박물관 · 규장각방문	
	14:30~17:00	강의: 한국어와 한글(신혜원)	
	(16:30~17:00)	(질의응답)	
	19:00	환영만찬회	서울대 국제지역원장주최 (호암관 마로니에)
10/18		조식	
(목)	10:00~12:00	강의: 근대한국의 역사적 변화 · 전개(김익한)	강의실 : 마로니에
	(11:30~12:00)	(질의응답)	
	12:00~13:30	중식	중식 : 금룡
	13:30~17:00	비원, 국립민속박물관	
	18:00~19:15	석식	석식 : 한일관
	20:00~21:15	현대공연관람(*난타)	공연장소 : 난타극장
	21:30	이동(난타극장→호암관)	
10/19		조식	
(금)	10:00~12:00	강의 : 사회과 교육의 현황(현명철)	강의실 : 마로니에
	13:00~14:00	중식	중식 및 체험장소 : 예지원
	14:00~18:00	한국문화체험(한국인의 생활문화 및 식문화)	
10/20		조식	
(토)	09:30~12:00	강의 :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 “국악”(황준연) 전통공연관람	관람장소 : 음악대 국악합주실
	12:00~13:20	중식	중식 : 동원관
	13:20~15:20	강의 : 삼국시대의 한일관계(이근우)	강의실 : 동백
	(14:50~15:20)	(질의응답)	
	15:30~17:30	강의 : 한국의 청소년 · 대중문화(이지원)	
	(17:00~17:30)	(질의응답)	
	18:00	석식*自由	
10/21	자유연수		
(일)			
10/22		조식	
(월)	10:00~12:00	강의 : 한국경제(정진성)	강의실 : 동백
	(11:30~12:00)	(질의응답)	
	12:00~13:00	중식	중식 : 샹그리라
	14:00~17:00	서울대 부속고등학교 방문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10/23		자유시간	
(화)	12:00～13:00	이동(서울대 → 광화문)	
	13:30～	판문점투어(석식포함)	
10/24		조식	
(수)	09:00	호텔출발(서울 → 부여)	
	12:00～12:40	능산리 고분군	
	12:40～13:30	중식	중식 : 부여대명식당
	13:30～17:30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18:50	호텔도착	호텔 : 대전유성호텔
		석식	
10/25		조식	
(목)	09:00	호텔출발(부여 → 경주)	
	12:00～13:00	중식	중식 : 수석가든
	13:00～17:30	국립경주박물관, 황용사, 괘릉, 석굴암	
	18:00	호텔도착	호텔 : 경주조선호텔
		석식	
10/26		조식	
(금)	08:30	호텔출발	
	09:00～12:00	안압지, 불국사, 반월성, 계림, 첨성대	
	12:10～13:10	중식	중식 : 석하
	13:20～17:45	천마총, 김유신묘, 포석정	
	18:00	호텔도착	호텔 : 경주조선호텔
		석식	
10/27		조식	
(토)	08:30	호텔출발	
	11:00～14:00	독립기념관(중식)	중식 : 독립기념관내
	15:00～	이동 → 도착	
10/28		자유연수	
(일)			
10/29		자유시간	
(월)	15:00～16:30	평가회	
	17:00～17:30	수료식	
	18:00	환송만찬회	한국국제교류재단교류이사주최 장소 : 용수산(서초동)
10/30		조식	
(화)	07:00～	호암관출발	

정보자료실 이용안내

●자료 열람 이용시간(2층)

	평 일		토요일
	동절기(11-2월)	하절기(3-10월)	
학기중	09:00-22:00	09:00-23:00	09:00-18:00
방학중	09:00-17:00	09:00-18:00	09:00-13:00

공휴일 휴관(일요일, 국정공휴일,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

☞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예: 방충일, 장서점검일, 12월 31일 오후 등)

● 도서 대출 및 반납 안내

구 분	대출권수 / 기간
서울대 교수	15책 45일
국제지역원생	10책 30일
서울대 강사 · 연구원	5책 30일
서울대 대학원생	5책 14일
서울대 학부생	2책 14일
국제지역연구 회원	2책 14일

☞ 대출가능 책 수 및 기간: 단행본 및 보고서에 한함
예약: 대출희망자료 예약 가능
연장: 1회 연장(예약 없을 경우) 가능
연체: 1권 1일(연체료 100원 / 대출정지 하루) 중 택일

☞ 정기간행물, 통계/참고도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관내 열람 · 복사 가능)

☞ 지정도서 / 영상자료의 대출기간은 3일간이다.

☞ 타인명의로의 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 도서 대출 / 반납 방법

· 대출하려는 도서를 검색용 PC에서 소장여부를 확인 후, 서가에서 직접 찾아 대출대로 학생증을 책과 제출한다.

· 본인이나 대리인이 도서를 가지고 대출대에 제출하면 반납처리 된다. 반납 후 반드시 반납여부를 확인한다.

◐ 문 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

일본자료센터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평, 연구리뷰 등 범위와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